

# 사통팔달 장흥, 문화·관광 르네상스 시대 연다

### 목포-장흥-부산 철도 2024년 하반기 개통 위해 막바지 공사 광주~장흥 4차선 등 '관광객 500만 시대' 광역교통망 확충 나서

장흥군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기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에 나섰다.

장흥군은 2023년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원년을 선포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밝혔다.

장흥군을 지나는 '보성-임성리 철도'가 현재 건설 중인 가운데 장흥 정남진역과 장동 해동사역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구간 공사가 완공되면 목포시에서 장흥군을 경유해 부산까지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운영된다. 2024년 상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하반기에 개통 예정으로 현재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 도시권과 연결하는 도로망을 개설 공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암과 연결되는 국도23호선 10.56km를 광폭 2

차선으로 개량하는 '장흥 유치-영암 금정 국도23호선 시설개량사업'이 2023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예정이다.

'장평 봉림삼거리-장동 배산IC 4차선 확포장사업'은 전남도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광주에서 장흥까지의 4차선 도로망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기본 실시설계 조기착수를 위해 전남도와 협의하고 있다.

장흥군 남부권과 북부권을 연결하는 국도23호선 '대덕-용산 국도 시설개량공사' 10.1km 구간은 2022년 10월 개통했다.

'장흥-유치 국도 시설개량공사' 4.4km는 올해 6월 완공될 예정이다. 광역 교통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장흥군과 인근 지역의 연결성이 대폭 향상되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 유치-영암 금정 국도23호선 시설개량사업 현장.

장흥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장흥 수문과 고흥 녹동, 장흥 노력도와 완도 금당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흥군이 남해안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함평군, 새우란 특별전 21~23일 함평자연생태공원

함평군이 새우란(鰻) 특별전시회를 21일부터 23일까지 나흘 간 함평자연생태공원 특별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자생란의 우수성과 멸종위기 식물인 새우란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새우란은 뿌리가 염주처럼 마디진 모습이 새우 등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난과 식물로,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꽃"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서식지는 남해안 도서 지방이며, 동양란이지만 서양란처럼 꽃이 화려하고 향기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화려한 색상과 기품있는 향기를 가진 금새우란, 한라새우란 등 7종 50점을 전시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올 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함평자연생태공원에서 매력적인 봄꽃의 향연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나주 4개 산단 오가는 무료 통근버스 호응

### 민선8기 '근로 환경 개선' 공약 혁신산단·나주일반산단 등 운행

나주시가 4월부터 지역 4개 산업단지를 오가는 무료 통근버스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 통근버스는 대중교통 여건이 미비한 산단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민선 8기 공약과제로 추진했다.

이해 올해 전라남도도 주관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 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45인승 버스 2대가 빛가람 혁신도시와 나주 원도심에서 혁신산단과 나주일반산단, 동수·오량농공단지로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일일 각 2회씩 총 8회 운행하고 있다.

빛가람동 첫 출발 운행 시각은 우미린 아파트 정문 앞 오전 6시50분과 7시50분이다. 같은 시각 나주 원도심 나주축협 앞에서도 산단행 버스가 출발



지난 19일 동수·오량농공단지에서 무료 통근버스 개통 축하식과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이 열렸다.

한다.

퇴근 시각은 노선 역순으로 오후 5시30분과 6시30분에 각각 출발하고 있다.

버스 탑승 전에는 근로자 여부를 확인하는 '헬로 버스' 어플을 통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승차 시 단말기에 QR코드(탑승권)를 인증하면 된다.

현재 하루 평균 이용자는 30여명이 이르고 있

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직장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출퇴근 여건이 개선되고 교통요금도 절감할 수 있어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홍보가 좀 더 이뤄지면 사용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 강진군, 민관 힘 합쳐 모자가정에 보금자리 제공 '38호 사랑의 집 짓기' 입주식...7개 기관·단체 등 후원

강진군이 '제38호 사랑의 집 짓기' 준공식과 함께 입주식을 가졌다.

〈사진〉  
입주 가정은 지적장애가 있는 모자가정으로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기장판으로 생활해 왔다.  
욕실이 없어 여름철에는 밤에 마당에서 샤워하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입주 주택에는 사업비 7000여만원이 투입됐다. 사업비는 강진군 1000만원, 강진로터리클럽 1000만원, 김종성·허자는 아너소사이터티 각각 500만원 등 총 7개의 기관, 단체, 후원자들이 쾌척했다.

강진군의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2개 단체가 참여해 그동안 38가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 담양 대나무 축제 기간 '담양장터' 할인전

내달 31일까지 500여 품목 20%

'담양 대나무 축제' (2023 뉴 뱀부 페스티벌)를 앞둔 담양군이 오는 5월7일까지 온라인몰 담양장터 상품을 모두 20% 할인 판매한다.

담양을 면양정로 730에 있는 담양장터 직매장에서는 다음 달 8일부터 31일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담양장터(damyangmk.kr)에서는 지역대표 쌀 '대숲맑은 담양쌀'과 전통 한과, 주류, 장류 등 500여 가지 농산물 가공식품을 만날 수 있다.

치즈돈가스 및 요거트, 건강보조식품 등 담양 농산물로 만든 식품도 선보인다.

대나무축제는 오는 5월3일부터 7일까지 죽녹원과 관방제림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장에서는 농특산물 판매 공간과 택배 신청 공간을 운영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축제 기간 담양 방문객에게 우리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추억과 함께 좋은 특산물을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나주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체계 구축...5월 센터 개소

나주시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5월부터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한다.

긴급돌봄센터는 남녀 각 1곳씩 운영하며 1곳당 입소 정원은 4명이다.

발달 장애인의 세면,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과 산

책·여가 활동, 차량 운행, 심리 상담 등 24시간 주야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차례에 1~7일, 연간 최대 30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사단법인 전남농아인협회 나주시지회가 선정됐다.

센터 운영에 들어갈 사업비는 국비 등 3억여원이 다.

나주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와 함께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에서도 더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